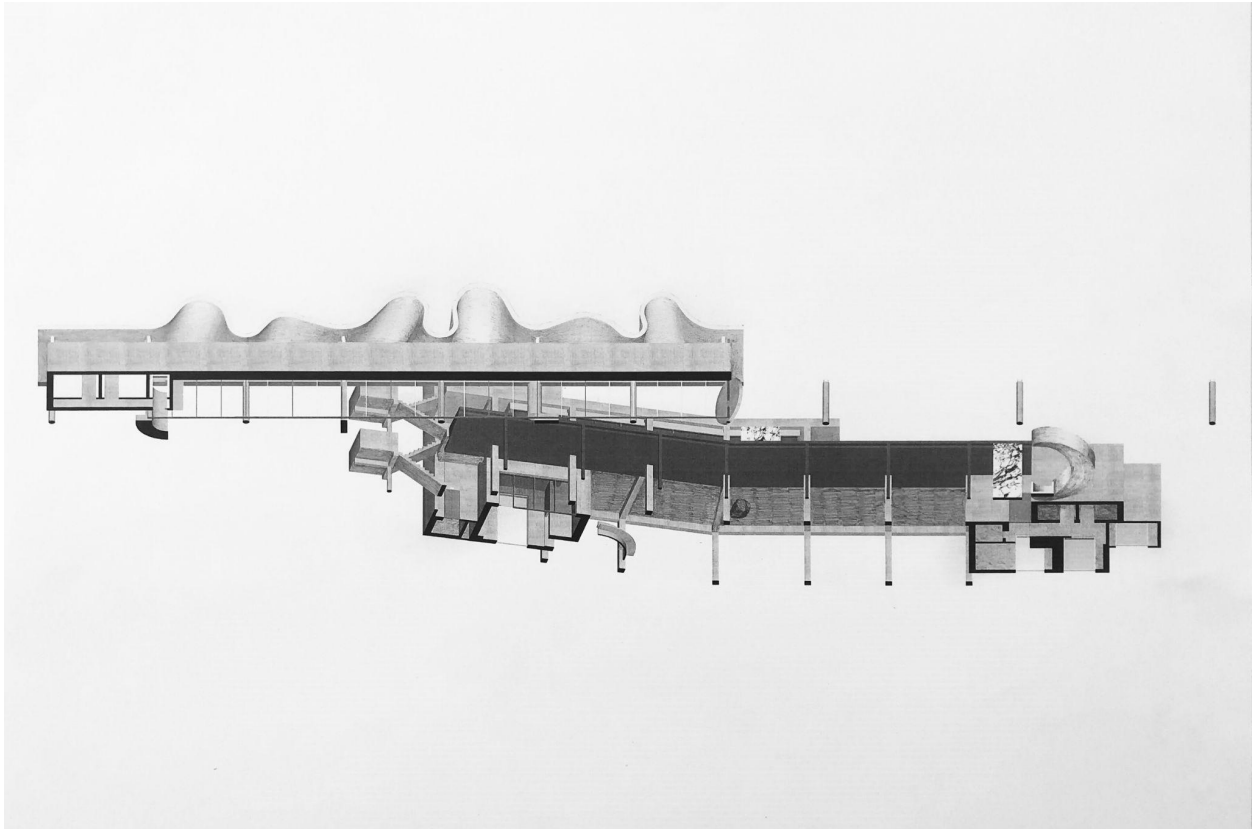


YONSEI Architectural Design Studio 2

Unit 2 by Hyoyoung Kim

CHANGCHEON DONG 창천동 89-27 외 4필지



인제 스마트복합센터 리모델링

Unit Master:

여러 젊은 건축가의 아틀리에에서 경험을 쌓은 후 김효영 건축사사무소를 개소하였다. 건축이 만들어지는 상황에 감정이입하여 성격을 찾아내고 표현하며, 이를 통해 건축과 지금의 우리를 묶어내려는 작업을 하고 있다. 연세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로 출강중이고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젊은건축가상을 수상하였다. 노을공원 아트 파빌리온 “새로운 지층”으로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하였고, “청운동 P씨덕”으로 서울시 건축상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이외 주요 작업으로 울산 바닷가벽집, 자람터 어린이집, 점촌 기와올린집, 문경 복터진집, 압구정 근린생활시설, 동해 폐쇄석장 리모델링, 인제 스마트복합센터 등이 있다.

Unit Agenda:

주제//

2학년 1학기의 단독주택이 자기만의 이야기로 특별한 건축과 공간을 만들었다면, 2학기는 건축이 만들어지는 보편적인 상황 안에서 건축의 이야기를 찾아나가려 합니다. 하나의 건축이 만들어지는 상황 안에는 대지의 크기와 형태, 도시의 맥락과 시대의 상황, 사용의 목적, 구조의 물리적 조건과 안전에 대한 문제, 법규의 규제와 자본의 한계 등 매우 복잡한 내용들이 얹혀있습니다. 우리가 모든것을 현미경으로 볼 수는 없더라도 이러한 상황과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성별과 피부색, 국가와 지역, 부모와 가족 무엇하나 선택할 수 없는 것처럼 싫다고 쉽게 부정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 안에서 생겨나야하는 건축은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 어떤 태도와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 살피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을 바탕으로 건축의 성격을 찾아내고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

방법//

대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89-27번지 외 4필지 (대지면적 602㎡)입니다. 이 대지는 연세대학교 야구장 건너편에 성산로와 철길 사이에 끼인 땅으로, 연세로 서측 상업가로 블록에서 성산로 22길을 따라 경의중앙선 철길 아래를 지나는 굴다리를 건너자마자 땅의 모서리를 만납니다. 해당 대지는 주변보다 낮아 좁은 골목길(성산로 22길) 사이를 지나다 보면 성산로의 석축 옹벽과 철길의 법면 사이에 숨겨져 있는 땅 같지만, 위에서 바라보면 성산로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지의 상황이 철길과 굴다리, 성산로와 석축 옹벽이라는 특별한 환경과 마주하고 있다는 것이고, 대지가 다양한 높이에서 가려지거나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지의 상황 안에서 우리는 대지와 주변의 맥락, 또는 건축이 마주해야 하는 다양한 조건들을 다소 직관적으로 읽어내 건축의 성격을 찾을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언급했던 특별한 조건들의 중첩된 상황 중 어느 하나, 또는 전체에 대한 이해와 태도가 건축의 성격을 규정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찾아진 성격을 바탕으로 건축의 용도, 형식과 형태, 요소와 표현 등을 규정하며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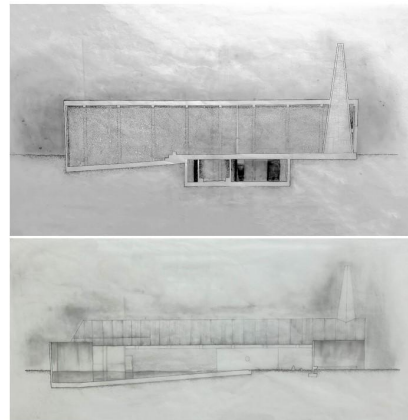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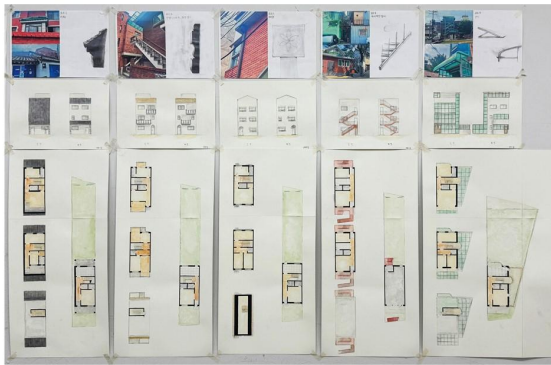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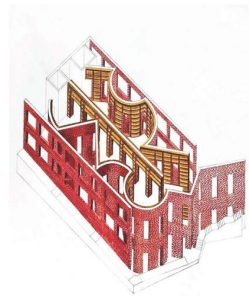
건축물의 계획의 출발은 주관적 의도와 개인적 감정의 특수성에서 시작하되 건축의 문법과 어휘로 표현하며 최종적으로 객관적 이해와 공간의 형성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건축에 관계하는 여러 내용과 감정들을 어떻게 실재하는 공간과 구조, 건축의 요소들로 연결하여 얘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부하려 합니다. 때문에 대지에 대한 계획을 포함 하지만 건축의 규모는 건축면적 500㎡ 이내, 연면적 1,000㎡ 이내로 하여 그리 크지 않은 규모 안에서 대지와 외부공간계획, 형태 및 공간구성을 바탕으로 안전설계(피난설계, 무장해 설계 등)의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한 건축계획을 진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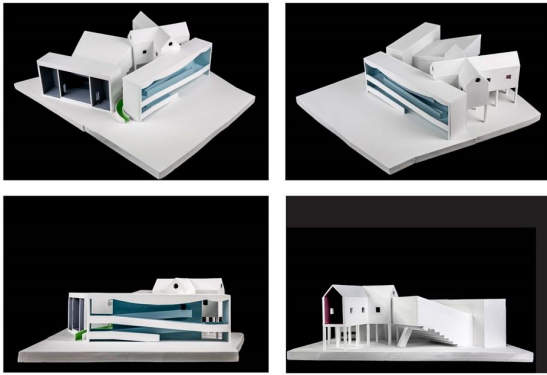




결과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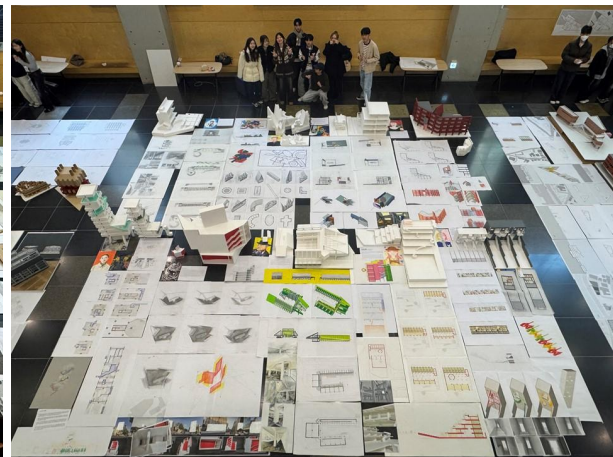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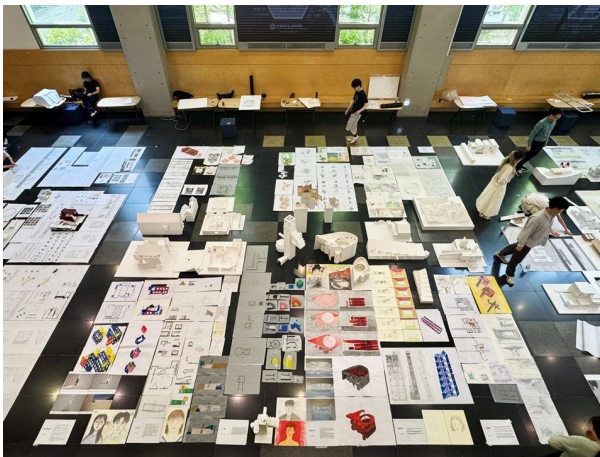
결과물은 대상에 대한 글과 그림 등의 건축적이지 않은 결과물과 함께 건축계획을 진행하면서 만들어지는 도면, 투상도, 투시도, 모형 등 건축적인 결과물을 포함하며, 이 둘 사이의 일관성과 내용과 감정의 건축적 반영 및 표현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특히 건축적 결과물은 약속된 표현의 형식에 맞도록 올바른 정보의 전달을 하여야하며 나아가 의도했던 내용과 감성, 분위기 등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합니다. 또한 건축이 실재의 크기를 다룬다는 측면에서 표현되는 도면과 모형의 스케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1/50 도면, 1/100 대지모형, 1/50 1/25 건축 모형을 최종 결과물에 포함합니다.





평가//

평가는 수업계획서에 등재된 비율에 따라 평가하되 각 평가시 각자가 프로젝트를 얼마나 주도적으로 하였는지와 각 단계의 성실도와 완성도가 주된 평가요소가 됩니다. 특히 최종 결과물은 올바른 건축적 표현으로 수업에서 목적하는 내용을 담은 결과물을 모두 완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Unit 지원자들에게 알림

2학년은 건축설계에 대해 깊이있게 접근하는 첫 학년인 만큼 전형적인 건축의 언어와 표현방법을 습득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할 것이며 그만큼 성실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 스튜디오는 이성과 객관에 대한 신뢰만큼 주관과 감성에 의한 가능성과 공감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때문에 논리적 사고와 함께 건축에 대한 감정이입과 그에 대한 건축적 표현을 주된 방향으로 할 것입니다. 내용과 감성을 건축으로 표현하고 전달하기 위해서는 건축언어의 문법과 어휘들을 습득하여야하며 건축에 대한 감각을 예민하게 하여야 합니다.